

올 세계 휴대폰 공급량 9억대

05년 판매량 8억1600만대 ... 노키아·모토로라·삼성 '3강 굳건'

작년 휴대폰 세계시장이 총 8억 1600대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권위의 리서치기관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04년 6억 7400만대보다 1억 4000만대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활짝 꽃을 피울 것으로 전망됐던 중저가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열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저가폰 시장 개화로 인해 작년 4분기에는 분기실적 사상 최고인 2억3000만대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다. 작년의 가공할 만한 물량 증가를 토대로 업계에서는 올 세계 휴대폰 시장이 9억대에 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글 | 김종을 기자(people@cellular.co.kr)



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노키아·모토로라·삼성전자·LG전자·소니에릭슨 등 상위 5개사의 공급량도 04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노키아는 2억대 돌파를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달성했으며, 모토로라는 1억 5000만대 벽을 코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또한 연간으로 1억대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LG전자와 소니에릭슨은 연간 실적 5000만대를 넘어섰다.

05년 휴대폰 세계시장 현황

(단위 : 천대, %)

회사	05년 판매	05년 점유율	04년 판매	04년 점유율
노키아	265,614.80	32.5	207,231.30	30.7
모토로라	144,920.40	17.7	104,124.20	15.4
삼성	103,753.60	12.7	85,238.40	12.6
LG	54,924.60	6.7	42,276.80	6.3
소니에릭슨	51,773.80	6.3	42,031.70	6.2
지멘스(+벤큐)	28,590.60	3.5	48,455.80	7.2
기타	166,985.10	20.6	144,643.70	21.6
합계	816,562.90	100	674,001.901	100

※자료 : 가트너

제조업체별 05년 실적

노키아 : 판매량 2억 6500만대로 점유율 32.5%였다. 04년 2억 700만대 대비 판매량이 6000만대나 늘었다. 점유율도 30.7%에서 2% 증가했다. 모토로라에 밀려 북미에서 다소 고전했지만 그외 지역에서 대부분 공급량 증가를 이루었다. 분기별 실적은 특히 4분기에 점유율 35%까지 올라서는 것으로 2004년도 부진을 털고 2003년 수준까지 회복했다.

모토로라 : 판매량 1억 4500만대로 04년도 대비 4000만대 증가했다. 점유율도 17.7%로 2.3% 상승했다. 04년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2위 싸움을 힘겹게 진행했으나 05년도 들어 2위를 확실히 굳힌 것으로 평가된다. 모토로라의 작년 업적은 판매량 증가로 짤 수 없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건 레이저로 슬림이라는 휴대폰의 흐름을 새롭게 짚기 때문이다. 레이저 휴대폰 등장 이후 세계 곳곳에서 슬림 휴대폰 출시 열풍이 인 것은 역시 모토로라의 힘인 것이다.

삼성전자 : 1억 300만대 공급 실적으로 점유율 12.7%를 기록했다. 노키아 및 모토로라에 이어 연간 실적 1억대를 돌파하는 역사상 세 번째 휴대폰 업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 1억대 돌파로 인해 빅3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3사 합한 점유율이 62.7%에 달해 경쟁을 불허하고 있는 것. 삼성전자는 또한 모토로라와 마찬가지로 블루블랙폰이란 대형 히트모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한껏 높였다. 블루블랙폰은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팔린 대형 제품.

LG전자 : 사상처음 연간실적 5000만대를 돌파한 5490만대를 기록했다. 04년 4200만대에 비해 1290만대나 증가했다. 이 증가세라면 올해 7000만대를 장담하는 LG전자의 높은 목소리가 괜한 허풍만은 아닌 듯. 연간실적 증가로 인해 소니에릭슨을 제치고 업계 4위를 완전히 꿰찼다. 특별한 부진만 없다면 소니에릭슨에게 업계 4위를 내주는 일이 없을 듯한 분위기이다.

소니에릭슨 : LG전자에게 업계 4위를 내주기는 했지만 연간 판매량 5170만대로 04년도 대비 1000만대 정도 향상됐다. 02년도 소니와 에릭슨의 휴대폰 사업부가 합쳐져 소니에릭슨이 탄생했을 때만해도 업계에서는 이들의 맹활약 여부를 '반신반의' 했는데, 04년도 완전히 시장에 정착한 데 이어 작년에도 상승곡선을 분명히 했다. 특히 워크맨의 브랜드를 살린 '워크맨폰'은 아시아를 주름잡았다고 표현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05년도 분기별 실적

1분기 : 1분기 시장은 1억8000만대로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이었다. 그동안 최고였던 04년 1분기 1억 5000만대보다 3000만대 정도 성장했다. 시장 활성화는 서유럽과 북미에서 판매 호조였기 때문. 이들 지역에서 교체 수요가 많이 일었던 것이다. 아시아도 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 특히 중국의 새해 특수는 아시아 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노키아는 540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30%를 유지했다. 전년 1분기 4400만대 판매로 점유율 28.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신장이었다. 모토로라는 3000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16.8%를 기록했다. 전년 1분기에는 2500만대 공급으로 16.3%의 점유율이었다. 삼성은 2400만대 공급으로 점유율 13.3%를 달성했다. 전년 1분기 1900만대 보다 500만대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

2분기 : 05년 2분기 전세계 휴대폰 판매량은 1억 905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2분기 성장세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2분기 판매대수는 1000만대로 전년동기 1060만대에 비해 다소 줄었다. 가트너는 음악 플레이어나 풀 기능의 웹 브라우저 탑재 휴대폰이 기변을 촉진했지만, 전체 휴대폰 시장을 이끌 만큼 위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노키아가 31.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 모토로라(17.9%), 삼성전자(12.8%), LG전자(6.5%), 소니 에릭슨(6.2%), 지멘스(4.7%) 순이었다.

3분기 : 2005년 3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은 총 2억 800만대로 1분기 1억7400만대, 2분기 1억8800만대를 넘어 분기 실적 2억대에 안착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연간실적 첫 8억대 돌파 가능성이 전망된 것은 이 시기였다. 2005년 3분기 2억800만대 실적은 전년 3분기 1억7500만대보다 19% 정도 증가한 것. 선진국의 교체 수요와 개도국의 신규 수요가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키아는 3분기에 6660만대 휴대폰 판매로 32% 점유율을 가져갔다. 전년 3분기 29.4%에 비해 점유율 2.6% 향상이었고, 5140만대에 비해 공급수량 29.6%(1500만대) 상승이었다. 모토로라는 3분기에 3870만대 휴대폰 판매로 상반기 상승세를 이어갔다. 3870만대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이다. 삼성전자의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0% 증

올 휴대폰 내수 규모 1600~1700만대

올해 내수 휴대폰 시장 규모는 최소 1600만대, 최대 1700만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시행과 월드컵 특수 영향을 반영한 시장 규모이다. 05년도 1400만대에 비하면 최대 300만대 많다. 한국투자증권 노근창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에 없던 2가지 특수가 맞물리면서 1700만대 돌파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 연구원의 전망처럼 시장이 형성된다면 역대 최대인 셈이다. 반면 가트너의 송석현 연구원은 "단말기 보조금 영향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600만대 시장 규모에 그칠 확률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월과 2월 내수 휴대폰 시장은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1월 140만대에 이어 2월 120만대를 기록했다.

가한 2680만대, 삼성은 전분기 240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했다. 3분기까지의 누적은 7500만대 수준으로 연간 1억대 돌파 가능성은 이 시기 더욱 선명해졌다.

LG전자는 3분기에 1550만대 휴대폰을 판매해 업계 4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소니에릭슨은 1380만

대를 판매해 6.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년 3분기 1070만대에 비해 300만대 증가했다. 점유율도 전년 3분기 6.1%에서 0.5% 상승했다.

4분기 : 4분기 시장은 2억 3000만대로 분기실적 2억대 돌파가 3분기에 이어 계속됐다. 연말 특수까지 맞물려 시장은 더욱 호황이었다. 4분기에서 주목할 것은 연간으로 2억 3000만대를 돌파했다는 것과 노키아 점유율이 35%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트너 송석현 애널리스트는 "중저가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빨리 커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노키아는 4분기에 8200만대의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04년 4분기 6600만대보다 무려 1700만대나 많다. 이 추세라면 06년 4분기 분기실적 1억대에 도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게 됐다. 모토로라 역시 4분기에 4180만대의 가공할 만한 실적을 달성했다.

06년 휴대폰 시장예상

올 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에 대해 업계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상 초유로 9억대 돌파 가능성 여부이다. 일부 메이저 휴대폰 업체들은 8억6000만대를, 일부 리서치 회사들은 8억6000만~9억대를 전망하는 등 다소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루어졌던 휴대폰 연간 성장률을 비롯해 작년 하반기부터 부쩍 커진 중저가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9억대 돌파가 다소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억대의 휴대폰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면 07년 10억대 연간 시장 규모에 도전하게 된다. **K**

2005년 분기별 휴대폰 시장실적

(단위 : 천대,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제조업체								
노키아	54,943.1	30.4	60,793.9	31.9	66,953.7	32.6	82,218.3	35.0
모토로라	30,293.6	16.8	34,018.1	17.9	38,500.2	18.7	41,884.0	7.8
삼성전자	24,099.0	13.3	24,478.6	12.8	25,674.4	12.5	28,285.4	12.1
LG전자	1,138.6	6.2	12,374.4	6.5	13,389.5	6.5	16,875.0	7.2
소니에릭슨	9,942.7	5.5	11,843.2	6.2	13,750.1	6.7	16,118.7	6.9
지멘스	9,900.0	5.5	8,894.8	4.7	9,517.7	4.6	11,101.7	4.7
기타	40,293.0	22.3	38,095.6	20.0	37,584.4	18.4	38,546.6	16.3
합계	180,610.0	100.0	190,498.6	100.0	205,370.0	100.0	235,029.7	100.0

※자료 : 가트너